누가 여성문학을 노래하는가

－김양선, 『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09.

김 연 숙 *

1. 경계에서 말을 건네다

오래된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 여성문학이란 태생부터가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계속되어왔다. '성性'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중심에서 벗어난/배제된 '여성'을 주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성man=사람·인간·인류=human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명제에서 어떻게 그와는 다른 성性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생물학적인지 문화적인지 등을 물어보는 작업이 여성주의Feminism의 시발이다. 따라서 여성주의는 여성의 변화라는 역사적 변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여성문학은 그 여성의 변화에 언어를 부여한 것뿐이다.

『경계에 선 여성문학』(김양선, 역락, 2009. 이하 『경계~』로 표시)의 지은이 또한 여성문학비평의 덕목으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 실천적 좌표의 설정"임을 지적하고, 자신의 글쓰기가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가 "여성문학의 성장을 위한 소통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이 조심스러움은 제목으로 붙인 '경계에 선'이란 표현에서도 그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대로 드러난다. 지은이에 따르면, 현재의 여성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의 일상을 낯설고 다채롭게 그리고는 있지만 현실과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흘러 다니고 있다. 그 유동적인 움직임을 경계에 서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지금의 여성문학이 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2000년대 이후, 우리 현실은 더 이상 성性이라는 범주가 일정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판단, 즉 개인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성별 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동일한 성性으로 묶기에는 그 집단 내에서도 수많이 차이가 파생되고 있다는 생각은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따라서 여성/여성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평가들의 입씨름이거나 익숙한 관습에 따르는 태도일 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개인은 여성으로 남성으로 혹은 그 무엇으로라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이기에는 어려운 개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여성문학'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부재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경계~』에서처럼 여성문학의 성장과 그 소통을 꿈꾼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한 글쓰기를 이만큼이나 묶어놓았으니 지은이에게 그저 수고했다고 하면 그만일 것인가. 이 글에서는 『경계에 선 여성문학』을 통해, 현단계 여성문학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런 후에야 이 책을 쓴 지은이에게 보낼 말을 골라낼 수 있을 터이다.

2. 여성은 사라지고, 여성성은 넘쳐흐르다

『경계에 선 여성문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여성문학비평의 과거와 현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기억의 정치학'과 '차

이의 정치학'을 여성문학비평의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2, 3부는 박완서, 박경리, 김인숙, 정지아, 공선옥 등 여성작가의 작품을 주로 분석하며, '기억'과 '차이'라는 아젠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천운영, 배수아 등 최근 여성작가들과 심진경, 허윤진 등의 여성문학비평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면서 여성문학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낯선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준다. 이 과정에서 '기억'과 '차이' 외에도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 대항 기억, 대항 담론' 등의 주제어를 사용해서 여성문학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1980~1990년대 여성문학의 전통으로부터 '기억'의 힘을, 2000년대 여성문학으로부터 '차이'의 힘을 끌어올려 그 둘을 서로 엮어내는 셈이다.

'기억'과 '차이'의 얽힘으로 지금의 현실에 맞서나가려는 『경계~』의 시선은 물론 2000년대 현실이 달라져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문학계에서 여성문학이 두드러지게 부상한 것은 80년대 이후이다. 1980년대 민족문학논쟁으로부터 비롯된 소위 여성해방의 문제[1]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성성 혹은 여성문학은 핵심논쟁거리로 주목받는다. 민족, 계급, 성차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비평적 쟁점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이후 여성문학은 신경숙, 공지영, 공선옥, 김인숙을 비롯한 여성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힘입어 독자적인 질과 범주를 획득한다. 이를 두고 지은이는 '여성성'이 복원된 것으로 정의한다.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로부터 근대의 위기를 극복할 타자의 윤리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관계성, 배려심, 친밀함, 의사소통 등이 여성성의 자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 혹은 '성차'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1)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계에 선 여성문학』의 1부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정치학; 1970~19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를 참조할 것.

제기되고, 내용상으로도 '여성성'을 전복 내지는 폐기하거나 재규정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나아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 체계마저 부정하면서 다양한 젠더들, 복수의 주체들을 재현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탈근대·탈주체·탈중심·혼종성·위반·유머' 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성차를 지우는 비평담론"이 중심세력으로 떠오른다. 따라서 여성문학과 여성문학비평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성차에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단언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점에서 『경계~』의 지은이가 주목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이나 성차의 정치학은 이론과 비평의 영역에서 과잉담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여성성은 여성문학의 고유한 자질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2000년대 문학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성성은 "배제되고 억압된 것, '재현불가능한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

여성은 사라지고, 여성성만이 넘쳐흐르는 현상. 이를 두고 n개의 성이 발현하는 국면으로 받아들여야하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경계~』가 서 있는 출발점이다. 『경계~』의 지은이가 분석하고 있는 '과잉된 여성성 담론' 현상은 달라진 현실에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문학의 본질 자체와 연결지어 재정의함으로써 또다른 본질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담론에는 1990년대 여성문학과 2000년대 여성문학 사이의 연속성보다는 단절을 강조함으로써, 낯선 상상력과 미학주의에 경도된 젊은 세대의 문학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경계~』의 지적 또한 타당하다. 지은이의 말처럼, 2000년대 이후 여성문학비평은 실험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 편혜영, 천운영, 한유주, 강영숙, 김애란 등이나 한강, 배수아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다. 특정 작가와 세대 그리고 특정한, 새로운 경향에 비평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텍스트에만 몰두하고, 암암리에 더 새로운 텍스트를 요구하는 연쇄고

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새롭다는 것은 물론 그 새로움만으로도 의미있다. 하지만 낯선 새로움이 지금의 현실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 새로움은 순간적인 반짝임에 불과하다. 성찰이란,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새 길을 내기 위해 혼란의 여정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 단절과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조차도 남의 것인 양 바라볼 수 있어야 성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타자들이 탈근대와 탈지역으로 특징지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면서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주체를 형성해 가는지, 그리고 그 주체 형성에 '성적'인 관점은 왜 여전히 유효한지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경계~』의 목소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학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이 인간 존재와 그 삶,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드러내는 것일진대, 여성문학이란 그 가운데 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점에서 『경계~』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중심주의는 단순하지만 근원적이고, 오래된 것이지만 미래의 그것이기도 하다.

3. 기억하다, 그리고 차이를 바라보다

낯설고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서 『경계~』는 '기억의 성치학'과 '차이의 성정치학'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운다. 사실상 이 부분이 『경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다. 그렇다면 기억과 차이라는 두 아젠다가 어떻게 지금의 여성현실에 접합하는가를 살펴보자.

『경계~』에 따르면 여성작가들은 기억을 서사화함으로써 미시적인 일

상 영역에서의 사적인 경험을 식민지 근대와 한국전쟁, 개발독재 시대의 거대담론이라든가 이념 등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려낸다. 그러면서 공적 기억이 지닌 억압성과 허위성을 폭로한다. 따라서 이 기억의 정치학은 여성 대중의 공감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27쪽) 특히 이를 두고 『경계~』는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 gendered cultural memory'이라고 명명하는데, '문화적 기억'이란 개인과 집단이 동일한 규범, 관습, 풍습의 토대 위에서 공유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위이다. 이런 상호작용은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역사와 신화, 트라우마와 노스탤지어,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공포나 욕망 간의 복잡한 동학(dynamic)으로부터 나온다.(94쪽)

어떤 문화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망각하는 것은 역사가 그러하듯이 선험적으로 있어온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다. 요컨대 기억과 망각은 권력과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담론적 실천행위라 할 수 있다. 『경계~』의 지은이는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으로 직조된 서사는 세부묘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나오미 쇼어에 따르면 세부묘사는 남성적인 것에 비해 여성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비해 특수한 것, 전체에 비해 세부를 우선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젠더화된' 개념이다. 세부묘사에 대한 관심이 여성적인 것과 연관되는 까닭은 사물이나 경험의 미세한 부분에 유의하는 마음, 그런 부분을 심미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여성의 생활과 문화에 널리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101쪽)

따라서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은 여성의 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망각'에 대항하는 '대항기억(countermemory)'이고 일상으로서의 역사의 구축에 다름 아니다. 『경계~』에서는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대표적인 예로 박완서를 들고 있다. 70~80년대 이른바 '박완서 논쟁'으로 불렸던 비평적 쟁투도 함께 거론하면서, 박완서 문학의 특징인 일상을 수다스럽게

기술하는 것이 '증언적 서술'의 방식이며, 이 기억의 서사화가 근대 이후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은 대항기억이자 대항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대항기억(countermemory)은 문자 그대로 중심에 대항하는 즉 대타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대항'으로부터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가치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대항하기만 할 뿐이라면 그것은 중심 담론에 따라 존재가 규정되는 부차적인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기억의 서사화가 의미있는 것은 대타적인 담론으로서가 아니라 가치 생성담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대 초기 '가정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했다는 말은 그로부터 근대 남성적 주체와는 다른 인간형이 출현했다는 의미이다. 사적 영역이 여성의 영역으로 고정되면서, 공적 주체와는 다른 개인이 탄생한 것이다. 그들은 가정성의 덕목과 윤리들에 따라 내면을 스스로 규율하고 조직한다. 그래서 동일성의 중심과 궤를 달리하는, '일상', '삶'의 문제에 천착하는 다른 태도의 개인이 만들어진다. 이런 다른 개인, 다른 삶으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가치야말로 기존의 것을 전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계~』에서 말하는 '차이'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 섹스와 젠더의 경계를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 차이들이 서로 수용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는데서 비롯된다. 인종·계급이라는 고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지역·성적 취향 등 차이의 복잡성을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계~』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때 정치성이 사라지고 미학주의에 경도되거나 매혹적인 문학상품으로 가공될 위험, 즉 엽기발랄한 상상력만을 중시하거나, 현실과 유리된 서사적 쾌락의 추구와 미학적 전복성의 강조로 지나친 미학주의에 빠질 것을 우려해야한다고 말한다.(29쪽)

『경계~』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경계~』에 따르면 새로 등장한 여성작가들은 여성성을 특화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인물의 존재조건을 드러내는데, 이때 중요한 분석틀이 '몸'이다. 몸은 "가부장적 상징 질서의 바깥 혹은 경계선에 위치한 여성의 주변성을 드러내는 물질적 기호이자 문학적 은유"이다. 문학적 전통에서 '몸'은 그 자체가 '이성'에 대비되는 열등한 것, 여성적인 것의 상징이다. 또 한편으로 '몸'은 여성성의 대표적인 자질인 '모성'을 체현하는 그래서 여성 자체를 설명해주는 기호이기도 하다. 이 오래된 상징과 의미망에서 벗어나 비천한 몸, 비루한 몸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여성문학은 "수동적이고 연약한 여성의 몸이 아닌 공격적이고 강한 몸, 생산하는 몸이 아닌 불모의 일그러진 몸은 이처럼 경계를 넘나들고 금기를 위반하는 여성의 전복성을 실체화"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전복적 힘이 반복적인 상징과 은유로써만 사용되는 경향은 여성문학을 새로운 미학적 경향 즉 쇄말주의에 빠져 미적 자폐성에 갇힐 위험에 직면하게 만든다. 더구나 여성의 몸이 전래의 지나친 긍정적 의미망에서 정반대로 뒤집어져서 부정성으로만 재현될 경향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한다.(68쪽) 비천한 몸을 통해 여성/남성을 벗어난 다양한 차이들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지만, 무차별적인 차이의 긍정이나 쇄말주의에 빠질 위험 또한 다분한 것이다.

스피박이 지적했던 것처럼 현단계에서 전지구적 페미니즘을 내세운다는 것은 의도하든 안하든 간에 국가라는 추상적 구조체를 재발명하려는 결과로 귀착되어버린다.[2] 마찬가지로 정현백은 한국의 현실에서 다양성

2) 특히 스피박은 전지구적 페미니즘이 민족주의와 파시즘과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일종의 추상적인 구조체로 재발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디스 버틀러 · 가야트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76쪽.)

을 찬미하는 목소리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이 전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 차원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실천방안을 내놓는다.[3]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종류의 연대를 기획하고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는 윤리를 정립해야한다는 『경계~』의 주장 또한 이런 맥락에 놓여있다. 이들은 모두 담론과 실행의 일치를 전제하고 있다.

한편 부차적이지만, 서구추수주의에 대한 지은이의 입장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해두어야겠다. 지은이는 서구적 맥락에서 생성된 차이의 정치학-주로 탈식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한다.(23쪽) 서구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의 내용이 다르다, 서구의 차이이론이 지향하는 바는 대체로 차이의 인정을 넘어선 차이의 증식이고, 이 경우 끝없는 차이의 연속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차이의 해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식민성을 벗어나고자하는 지은이의 시도는 전적으로 긍정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서구 차이이론, 탈주체론의 한계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현실에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차이의 반복'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지일 것이다.

4. 누가 여성문학을 노래하는가

누가 여성문학을 노래하는가. 이 말은 주디스 버틀러와 가야트리 스피

3)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394~399쪽.

박의 대담집 제목-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Who Sings the Nation-state?)-을 살짝 바꾼 것이다. '국가 없음'을 핵심어로 하는 버틀러와 스피박의 대담은 '국가'와 '민족'의 공통 호명에 의존해서 어떤 주체들은 국가에 적법한 주체로 묶어내는 동시에, 다른 주체들은 적극적인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국가 밖으로 내치고 추방하며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4]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결속하며 구속하지만(bind) 동시에 속박을 푸는(unbind), 즉 권리를 박탈하고 추방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민족'이나 '국가'를 거론할 때, 주권과 그 결핍의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네트워크를 주목해야한다면, 마찬가지로 여성문학에서도 벗어남과 위반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이 순수한 기원이나 오염없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물론, 자본의 회로에 포섭되지 않는 절대적 타자로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은 국가, 계급, 젠더 등 전래의 모순은 물론 전지구적인 자본과 욕망(혹은 권력)의 회로로부터 포섭되는 동시에 주변화된다. 다시 스피박의 말을 빌자면 결속·구속과 동시에 속박에서 풀려 박탈되고 추방당하는 존재인 셈이다. 『경계~』가 가장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 달라진 현실과 여성 주체의 가능성, 실행가능한 아젠다이다. 이러한 지은이의 태도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천적 전략에 더 가깝다. 현실을 중시하는 실천적 태도야말로 『경계~』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다.

한편 지은이가 여성 공동의 '기억'과 함께, 성차 및 여성들 내부의 차이까지도 아우를 '차이'를 내세운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기억과 차이는 아젠다 제시와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 현실에서 '차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차이에 대한 단순한 인식은 쉽게 본질적인 정체성 논의로 이어지면서

4)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122쪽.

상대를 규정하고 타자화할 위험이 있다. 대립과 저항을 통해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대와 접속을 통해 차이를 또 다른 차이로 생성해내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차이의 정치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 『경계~』에서 내세우는 '차이'가 '차이의 성정치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차이가 아니라 그로부터 만들어내야 할 '생성'이다. 최근 여성문학비평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n개의 여성성이라는 복수적 젠더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수행성'이다. 즉 모든 성담론의 질서는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이 "반복"됨으로써 생산된 이차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반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을 때에만, 복수적 젠더는 비로소 우리 삶에 관계되는 의미망이 될 수 있다.

분명 지금의 여성문학은 『경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천성과 활력을 상실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 실천성과 활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과 존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자 그러한 능력이다. 2000년대 이후 여성문학에서 유행어처럼 널리 퍼진 '탈(post/de)' 혹은 '성차를 지우는 방식'이 실천성과 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벗어남이 '끊임없는 과정'이어야 한다. '성차'는 그것이 n개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우리 존재에 대해 인력(引力)을 부과하고 있다. 그 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맞서는 과정이 지금의 여성문학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그것이 『경계~』에서 내세운 '기억'과 '차이'로부터 우리가 나가야 할 지점일 터이다.

---

5) 우에노 치즈코 · 조한혜정,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2004. 21~22쪽 참조.